

2024년 8월 25일(주일) 제1697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2024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15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봉사에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이번 수여받는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선발된 모든 학생은 찬양예배 수여식에 참

석하여야 합니다.

2024 하반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및 순례장학금 : 김은빈 소준 임하린 장유선 장해라
- 브리스길라장학금 : 김가은 배인혜 손주찬 전진석
- 송암장학금 : 유성걸 장하늘 정은지
- 광림장학금 : 류평안 윤장원 최연주

2024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고린도전서	화, 오전 10:30-12:00	9.3-10.22(8주)	최종국 목사	서울교회 603호
욥기	금, 오전 10:30-12:00	9.6-10.25(8주)	장석남 목사	서울교회 603호
살롬대학	목, 오전 10:30-13:30	9.5-11.7(10주)	박미라 전도사	서울교회 101호

2024년 8월 세례식 거행

교회는 지난 8월 18일 찬양예배 시 2024년 세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

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교자 : 김울 이주호 임준우 계 3명
 - 유아세례자 : 하예린 계 1명
 - 세례자 : 정헌모 홍건희 계 2명
- 총 6명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위로 in 서울 음악회]

9월 7일(토) 오후 4시, 연세대 대강당



우리 교회 손달의 위임목사님이 섬기시는 '더불어배움재단'의 가을 행사인 '위로 in 서울' 음악회가 오는 9월 7일(토),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배움재단의 일련의 음악회는 한국교회총연합회와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국민 문화사업으로 금년은 청주, 군산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되며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번 음악회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무료로 티켓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교구의 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불안한 인생의 희망

(시 43:1-6)



손달익 위임목사

불안이란 ‘불편한 일이나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 요소입니다. 현실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수 없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삶의 앞길을 가로막지만 인생 문제에는 정답이 없기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종류의 불안 요소를 한 몸에 안고 삶을 살아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은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버려져 매일의 삶이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극복했고 마침내 가정을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안에는 불안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 곧 하나님 신앙이 깊고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불안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1. 불안한 현실의 이유들

시편 43편은 42편과 한 쌍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 절망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하는 한 신앙인의 절규를 이 한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시인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으로 제사장 지파의 한 가문이었지만 출애굽 할 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는 당을 결성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다가 하나님께 지진으로 심판 당하고 징계 당했다가 후에 찬양대의 직분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대하 20:19)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자 예배할 곳도 없어지고 문지기들로서 지켜야 할 성전도 사라졌으며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마음 놓고 찬송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절대 불안과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책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임을 발견한 고라의 자손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중단되며 그들은 포로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영적 현실이 만든 필연적 결과임을 알고 불안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가 외롭고 초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Augustinus(성 어거스틴)는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Pascal(파스칼)도 ‘모든 사람에게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수치의 불안

시인은 그들의 불안이 단순한 현재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려온 수치스러운 현실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 슬픔과 수치를 애타게 고백한 예레미야는 참

담한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애 1장) 수치심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자기 모습이 노출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문에 수치를 느끼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려 시도하거나 현실을 피해 가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실패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참담한 현실과 원수의 억압 앞에 속수무책인 자기 수치를 공개합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실패의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기도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시 42:2),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시 43:3)라고 간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반성으로 새로운 자기 변혁과 발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두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반성과 회개로 자기 갱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평안으로 다가오고 수치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사 25:8).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평안을 회복시길 기원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가
외롭고 초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3.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사라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조공과 멸시와 비웃음은 폐부를 찌르고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감으로 삶은 위축되었고 슬픔의 눈물이 주야로 그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든 그 어디에도 해결책은 없고 오늘은 고통스럽고, 내일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라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들의 신앙까지 희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생을 담대하게 사셨던 사도 바울도 사는 동안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억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두렵고 몸도 연약했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안고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머물다’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장막치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지만 이 연약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위에 당신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것이니라”(히 4:16). 실망스럽고 불안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능력이십니다.

불안과 싸웁시다. 불안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때를 자기 갱신과 변혁의 기회로 삼읍시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겨냅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출애굽기 20:3, 로마서 13:8-10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중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 나라가 튼튼하려면,
- 첫째 식량이 넉넉해야 하고
- 둘째 군비가 충실해야 하며
- 셋째 공신력(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한 가지를 빼야 한다면 군비요, 또 하나를 빼라고 하면 식량이다. 즉 나라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경제력, 군사력, 공신력이 다 중요한데 하지만 그 중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바로 공신력 즉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선민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와 조직을 세우며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법으로 보면, "헌법"에 해당됩니다.

헌법은 언약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과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언명령,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들이 확대되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규정이며,

둘째 5, 6, 7, 8, 9,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의 규정입니다.

즉, 오늘 본문 중 출애굽기 20장 3절은 대신(對神)관계를 로마서 13장 8-10절은 대인(對人)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물질만능주의 시대, 맘몬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닌 탐욕과 탐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자로 서도록 요구합니다.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3:8-10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최소한의 규칙이 십계명의 내용과 더불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모든 수평적인 계명들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 다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수평적 계명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 사랑

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에서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가 무조건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며 절대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일만달란트 탕감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백 데나리온의 빛진 자를 용서하도록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며 완성하는 자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탕감 받고 남의 사랑의 빛을 용서한 자이며, 이것이 수평적인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일반 세상 조직이나 국가와 다릅니다. 근본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1. 우리 개개인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신앙인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빛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과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서로에게 지고 지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과 신뢰가 상호 이루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서로 베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태가 해결되고 손달익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4년여가 지나고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해 오던 중 지난 8월 초 휴가를 다녀와서 부산 소재의 비전교회 담임목사 청빙 확정 소식을 들으며 서울교회에서 제 역할이 모두 끝났다는 답답한 마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정들었던 성도님들을 앞으로 뵈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저희 아들들(연우, 건우)이 4살, 6살 꼬맹이일 때 서울교회 본당에서 첫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어느덧 11년이 지난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 가운데 이렇게 건



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무탈하게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헬라어 단어 'πρὸς(프로스)'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쁨의 시간들,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교회 지난 역사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저희 가정의 슬픔의 시간(양가 부친의 별세)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섬겨주신 원로장로님들과 은퇴 장로·권사님들 그리고 당회원분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회복을 위해 서울교회로 오셔서 사랑으로 교역자들을 이끌어 주신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박영숙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 가정의 목회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는 저의 고향인 부산 남구 대연동의 바로 아랫동네인 우암동에 있는 비전교회입니다. 우암동은 '소 형상의 바위'란 뜻을 지니는데 부산항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 마을입니다. 부산은 바다가 보이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암동은 가장 늦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지금은 한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비전교회는 6.25 한국 전쟁 당시, 미군 군목 목사님과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기에 지어진 양철 지붕의 교회에 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 이상 교회

가 수용할 수 없는 인원으로 인해서 교회를 재건축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소금을 팔고, 파출부 일을 하며, 심지어 원양어선을 타고 모은 건축현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300-400명의 성도들이 모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으나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리더십 문제가 이어져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제가 부임하여 내실을 잘 다지게 된다면 지역의 재개발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이 원래는 부산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이 가장 큰 지역이었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3,000세대가량의 아파트가 2026년 들어

설 예정입니다.

부임을 앞두고 많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기회가 될 때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며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생각나실 때에 저희 가정과 목회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목회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부산의 새로운 환경과 비전교회에 저희 가정이 잘 적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아이들 학교 적응)
- 비전교회의 내실을 잘 준비하여 지역의 개발과 발맞추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2024 바자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즐거운 추억을!



장상국 안수집사
(2024 바자
기획부장)

"엄마, 북평(강원도 지역) 5일 장날이 언제예요?"

"매월 3일하고 8일이니까. 내일이네."

"엄마 그럼 내일 우리 장에 가요."

"그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엄마와의 장날에 먹은 짜장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좋은 추억으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유쾌하고 즐겁게 기억되는 추억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서울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 벌써 2024년 서울교회 사랑의 장터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이웃사랑의 실천과 더불어 유쾌한 서울교회 바자를 다음 세대에게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바자회는 10월 18일(금), 19일(토) 양일간 진행되지만, 미리바자를 추석연휴 전인 9월 8일(주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리바자에는 주로 반찬류와 불고기, 송편, 김, 한과를 준비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9월 1일(목)까지 권사회와 전도회를 중심으로 사전 주문을 받아서 준비하여 9월 8일(목)에 1부 예배 후 8층 식당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찬류

1. 연근조림 2. 팥콩조림 3. 오징어 실채 4. 진미채 5. 고추장볶음 6. 멸치볶음 7. 더덕 8. 낙지젓갈 9. 무말랭이 10. 깻잎 10. 수제장아찌 (25팩 한정) <이상 반찬은 각각 만원입니다>
11. 불고기 2kg:35,000 12. 백명란젓 1kg:23,000 13. 송편 1kg:13,000 14. 식탁김 15봉:14,000 15. 식탁김 24봉:23,000 16. 서산한과 500g:15,000 17. 서산한과 1kg:24,000

주문 : 권사회 최중희 권사

입금 : 카카오�뱅크 3333-31-4581101
(유미영 권사)

기타

1. 배추김치(5kg) : 에스더전도회 박민숙 권사
2. 들기름·참기름 : 한나전도회 최복희 권사

-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 섬기는 사람들(수정) -

- 지도목사 : 김익환 목사
- 본부장 : 김승록 장로
- 차장 : 예완식 안수집사
- 지원 : 김영희 안수집사
- 기획부장 : 장상국 / 오선혜 김의정 김동욱
- 재정부장 : 오명걸 / 이명신 김정민 최복희 이용호
- 판매관리부장 : 이겸손 / 최중희(권사회) 이원석2 고민정
- 섬외특판부장 : 최근우 / 김지옥 차주호 하상영
- 중고장터부장 : 손태현 / 김광래 심상필 최복희 박복순
- 홍보부장 : 김금재 / 이승준 김영숙 유은경 이상영
- 시설관리부장 : 장창수 / 황병석 이강전 스테반희
- 차량관리부장 : 김용기 / 조서현 정성우2
- 식당관리부장 : 임우택 / 백영자 박미혜 오가연



19강 : 사도신경-성자 하나님(4)

42문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는데, 우리가 죽는다면 죄값을 두 배로 치루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40문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고 할 때 대속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ransom입니다. ransom은 몸값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사용될 때는 '요구되는 것을 지불하거나 주

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무죄선언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죄의 값과 죄의 값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로마서 6:23(개역개정)입니다. 여기서 ‘죄의 값’은 ‘wages of sin’으로 표현됩니다. wages는 일한 댓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열심히 죄지으면서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댓가가 죄의 값입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받지 않았을 텐데, 알고보니 그것이 죽음이었고 물릴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라고 해도 죄는 죄

이기 때문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유전을 통해 전해받은 죄의 값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치루신 죄값을 한번 더 치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인류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빛을 상속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빛도 유산이고 재산입니다. 이 빛 때문에 유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기회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안식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첫발을 내딛는 일입니다.

43문 :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속성이 있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제사의 전제가 바로 그 연속성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

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값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속받아서 더 이상 죄값을 치루지 않아도 되는 상태 곧 빛을 탕감받은 상태가 된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 곧 공들인 보람으로 우리의 옛 사람과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정과 욕심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기에 육신의 악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44문 :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descended into hell(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표현이 있으나 한글 번역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19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은 죽지 않으셨을 것이기에 영혼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오셨는지 생각하면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고 생각하였고, 베드로전서에는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을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내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4년에 발행된 찬송가에는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 1897년에는 보이지 않고, 1905년에는 다시 포함되었다가 1908년에는 다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날까지 지옥강하 내용이 빠진 사도신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해석과 교리적인 논쟁과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논쟁적인 부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지옥강하와 관련된 교리는 “지옥 정벌(harrowing of hell)”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후 운명하신 시점부터 부활하신 시점 사이에 지옥(또는 하데스)으로 내려가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지 창조 이래로 그곳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가져간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믿음과 관련된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 용어입니다. "New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Harrowing이라는 단어는 A.D. 1,000경에 알프리의 설교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카드몬과 신우프와 연관된 고대 영어 시에서 지옥으로의 내려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지옥에 있는 갇힌 영들을 빼내어 오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만인구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리이기에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내려가셔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믿지 않을 영혼들이 없을 것이고, 또다시 재림 이후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 영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옥정벌 교리는 만인구원 교리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도신조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옥강하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동정

- 사임 : 조원영 목사님이 부산 소재 비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8월 31일(토)자로 사임합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 임흥서 · 박선영
(5교구 박정선 은퇴장로·김남순 은퇴권사의 딸)
9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더 라움(THE RAUM) 체임버 홀

2021년 서울교회에서 결혼예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확산으로 인해 한국에서 결혼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미국서 정재흥 목사님 인도로 성혼식을 올리고 살던 중 이번에 서울에서 양가 부모님 참석하에 결혼식을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저녁식사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정선 은퇴장로·김남순 은퇴권사 배상-

식사 제공



- 3교구 전광영 은퇴집사·김인숙 권사 자녀 전용운 전용천 전주진 (아버님 생신을 감사하며)

일부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 변동

조원영 목사님의 사임에 따라 일부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가 변동됩니다.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교구 : 김익환 목사
- 5교구 : 장석남 목사
- 8교구 : 김익환 목사
- 찬양위원회 : 김익환 목사
- 관리위원회 : 장석남 목사
- 세례교육부 : 최종국 목사
- 직분자양성부 : 최종국 목사
- Vision2030 : 최종국 목사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우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8월26일	월	겔 1-4	삼상18	롬16	애3	시34
8월27일	화	겔 5-8	삼상19	고전1	애4	시35
8월28일	수	겔 9-12	삼상20	고전2	애5	시36
8월29일	목	겔 13-16	삼상21,22	고전3	겔1	시37
8월30일	금	겔 17-19	삼상23	고전4	겔2	시38
8월31일	토	겔 20-21	삼상24	고전5	겔3	시39
9월1일	주일	겔 22-23	삼상25	고전6	겔4	시40,41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8월의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의 걸음을 걸으며 선교적 삶을 사는 순례자 되게 하소서.
2.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에 평안과 부흥의 은혜 허락하시고, 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님 청빙 과정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전 세계 곳곳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재난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향한 전진이 있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